

초등학생의 진로인식, 진로포부 및 직업포부유형 간의 관계

최 인 화

한신대학교

임 경 희

순천대학교

박 미 진[†]

공주교육대학교

본 연구는 초등학생 301명을 대상으로 진로인식과 진로포부 및 직업포부유형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진로인식이 진로포부와 직업포부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진로인식은 성별에 따라 진로인식 전체와 하위척도 중 의사결정, 진로태도와 자기주도성, 진로준비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포부 유형은 실재형, 예술형, 사회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학년에 따른 결과는 진로인식 하위척도 중 자기탐색, 직업편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진로포부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진로인식과 진로포부 및 직업포부유형 간에는 부분적인 상관을 보였다. 셋째, 진로인식의 하위척도 중 자기탐색, 자기주도성, 진로준비성이 진로포부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포부유형 전체와 각 하위척도에 따라 진로인식의 각 하위요인이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논의 및 결과에서는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진로인식, 진로포부, 직업포부유형, 초등진로상담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미진, 공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314-711) 충남 공주시 봉황동 376번지
Tel : 041-850-1720, E-mail : meejini@hanmail.net

아동의 진로발달은 개인적 삶과 사회적 입장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아동이 미래에 선택하게 될 직업에 대해 인식을 확장시키고 확신을 갖는 것은 개인의 잠재력 실현의 밑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초등학생들을 조력하는 것은 진로지도 및 상담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임경희, 2004).

Super(1990)에 의하면 아동기는 성장기로 호기심과 환상을 기반으로 직업을 생각하다 차츰 자신의 흥미를 인식하고 좀 더 현실적인 직업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시기이다. Super의 이론과 함께 대표적인 진로발달이론인 Gottfredson(1981)의 이론에서는 아동들은 성역할 지향성과 사회적 가치 지향성에 의해 직업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기대인 포부를 지니게 된다고 본다. Super와 Gottfredson 모두 아동이 직업과 관련하여 자기 자신(자신의 가치, 감정, 흥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harf, 2010).

초등학생 진로발달에서 호기심, 환상, 직업적 선호경향, 직업포부, 진로인식 등의 개념은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종범, 2005). 아동발달 분야의 연구들에 의하면 초등학교 2, 3학년이 되면 자신이 해야 할 일, 일에 대한 기대, 활동에 대한 기대 등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미 초등학교 4, 5학년이 되면 자신의 진로 및 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며, 6학년부터 잠정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이현림, 이난희, 이영옥, 2006). 진로의사결정이 고등학교이후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잠정적인 진로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위해서는 진로인식 단계인 초등학

교부터 조기개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로교육은 발달과정에 따라 진로인식, 탐색, 준비, 동화 단계로 개념화할 수 있는데(Brolin, 1995) 초등학교 시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진로인식의 단계이다(한국교육개발원, 1985). 자신이 가진 흥미, 적성, 성격 등에 대한 이해가 명확히 되고 직업세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확대될 때, 진로인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진로인식의 확대는 구체적인 직업선택에 대한 기대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충기(1995)에 의하면, 진로인식이란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개인이 일의 진가와 진로선택의 준거를 이해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소양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체구, 성별과 같은 신체적요인, 흥미 적성 욕구 감정과 같은 심리적 및 정서적 요인, 가정과 같은 환경적 요인, 천재지변과 같은 우연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이현림, 2003). 또한 한국고용정보원(2008)에서는 진로인식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자신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자기이해, 직업이나 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관련된 직업세계인식, 진로준비성과 자기주도성으로 이해되는 진로태도로 보았다. 그에 따라 초등학생용 진로인식검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진로인식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조재순(1991)은 초등학생들의 진로인식에 보호자의 직업 등 가정 배경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학부모의 올바른 인생관과 직업관 형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박철수(1998)의 초등학교 학생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진로인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6학년이 5학년보다 높았으며 일의 세계, 일의 인식문제는 보호자의

직업에 따라 보호자의 직업이 전문직일 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희(1998)는 자아에 대한 인식은 성별에 차이가 없었으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은 낮게 나타났다. 일에 대한 가치관 인식은 학년이 높을 수록 직업의 귀천과 정신노동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으며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신노동의 일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석녀(1998)의 연구에서는 진로인식은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인식, 일의 세계, 의사결정 능력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볼 때, 초등학교 수준에서부터 일의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자기 인식을 위한 지도가 필요하며, 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태도를 갖출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이정근, 1989). 초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인식은 아주 가까운 것, 쉬운 것부터 점차 넓고 복잡한 것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일의 소중함, 각종 직업에 관한 관찰 등 진로에 대한 인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임균택, 2000).

Gottfredson(1981)은 진로자아개념의 발달과정에 직업 세계에 대한 인식단계를 포함시켜서 이를 진로포부의 발달이론으로 체계화하였다. 그는 진로포부가 개인이 특정시점에서 가장 좋은 직업적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희망직업을 의미한다고 가정하면서 개인의 자아개념, 직업에 대한 이미지, 직업의 접근가능성, 선호성 등과 같은 여러 요소에 의해 형성된다고 가정하였다. 자신의 포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장래 진로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개인의 진로선택을 명료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진로발달과 직업성공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O'Brien, Gray, Touradji, & Eigenbrode, 1996). 결국 아동의 진로인식은 직업포부의 형성에 영향을 주어 이들의 진로발달을 이끌며 진로선택과 결정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진로포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김정주(2009)는 진로포부가 갖는 중요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째, 진로포부는 개인이 가장 적합한 직업적 대안으로 여기는 희망 직업 또는 이에 따른 직업지위, 즉 직업포부를 의미하고, 둘째 진로포부는 직업포부와 교육포부를 포함한다. 셋째, 진로포부는 직업선택과 더불어 그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지와 승진, 리더십, 전문가가 되고자하는 신념의 총합이다.

초등학교 시기는 자신의 진로를 처음으로 현실적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때이며 초등학교생들은 자기이미지에 맞는 진로포부를 발달시키는 중요한 과정을 경험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양난미, 이은경, 2008). 개인의 진로포부는 초등학교 2학년 시기에 생기고 이 시기의 포부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알려져 있다(정행옥, 2005). 또한 이들의 진로포부는 오로지 흥미에 기인된다고 가정한 환상적 단계에 비해 더 안정적임을 주장하는 연구가 있다(Trice & King, 1991).

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을 탐색한 선행연구들(O'Brien & Fassinger, 1993; Rainey & Borders, 1997)에서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및 교육수준, 지능, 성역할 태도, 학업성적, 학교소재지, 자아개념, 유의미한 타인 등 많은 변인들이 개인의 직업포부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은 성역할 정체감(송은자, 2004; 이정임, 2008), 부모학습관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양남미, 이은경, 2008), 주요타인 및 매체, 학교활동(전선미, 2009) 등을 변인으로 삼았다. 황매향, 김지현, 유정이(2004)는 청소년의 직업 인식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각 직업영역에 대한 포부수준은 연령에 따라 증가되면서,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보다 여성적인 직업에서 높은 포부수준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공윤정과 박한샘(2009)은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직업포부가 아동의 특성보다는 사회적 명성수준에 따라 형성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직업기대와 차이를 보이며 현실적인 인식을 시작하고 있다고 보았다.

초등학교 시기는 일의 진가와 진로선택의 준거를 이해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관심이 확대되는 진로인식의 시기이다. 이러한 진로인식은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소양을 갖추는 것으로 자신이 하기를 원하는 진로에 대한 계획과 목표 즉 진로포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의 진로에서 만족과 성취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성, 흥미, 성격적 특성들의 개인적 성향과 원하는 직업의 요구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변화하는 직업의 세계에서 개인이 처한 환경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직업의 선택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가변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이다(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5). 직업에 대한 적응이나 성공에는 개인의 능력, 인성적 자질, 신체적 특징, 경험, 교양, 의지력 및 기타 환경적인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 직업의 선택과 성공의 요인으로 가장 많은 주

목을 받아왔던 변인은 직업흥미이다.

Holland의 직업흥미이론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친숙한 활동이나 특정 직업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흥미는 몇 개의 범주로 나뉘질 수 있고, 한 개인이 특정 흥미유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유형에 속하는 어떤 특정 직업에도 흥미를 함께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기본 가정이다. 이와 함께 한 개인의 흥미유형과 직업과의 일치 또는 그만큼 개인의 인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가정을 갖게 됨으로써, 흥미는 능력 및 적성과 더불어 진로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다(허영운, 1998). 흥미의 본질과 구조에 대해서는 한 가지 뜻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흥미는 어떤 활동이나 사물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인 느낌, 즉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다(김충기, 1995). Gottfredson(1981)에 따르면 대략 9-13세가 되면 개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지적 능력의 수준을 인식하게 되고,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능력에 맞는 적당한 직업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직업에 높은 흥미를 보였다.

직업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직업유형은 진로태도(성혜경, 2003), 진로성숙수준(안성대, 2002), 학업성취도(김명진, 1997; 오선미, 1999)와 상관이 있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직업흥미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탐구형의 학생들은 다른 직업흥미를 보인 학생들보다 모든 과목에서 높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냈으며 실재형과 사회형의 학생들은 모든 영역에서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였다(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중앙고용정보원, 2001; 성혜경, 2003; 이은애, 2006;

최동선, 1997). 또한 직업흥미유형은 자아정체감의 주체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장의 직업에 따라서는 직업흥미유형에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 경제상태, 출생순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성혜경, 2003).

다른 연구에서는 직업흥미유형은 성별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실재형과 탐구형에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예술형과 사회형이 높았다(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중앙고용정보원, 2001; 이은애, 2006)

현대사회가 산업화되고 과학기술문명의 발달로 점차 전문화되어가면서 전통사회에서 단순히 생존을 위해 직업을 선택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개방화시대에 맞게 개인의 흥미에 따라 만족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2001). 직업포부 유형이야말로 직업의 선택과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따라서 직업포부 유형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다 자신에게 맞는 진로나 직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학생들의 장래를 보람 있고 성공된 생활로 만드는 첩경이 될 것이다. 또한 자기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이 직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을 시작하게 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열망을 갖는 직업흥미와의 관련을 살펴본다면 잠재적인 결정을 하는 시기인 초등학교 진로상담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직업과 일이 개인의 생활에 절대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진로선택이야말로 한 개인의 진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이재창, 1992).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여 자신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장식(199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진로교육의 적절한 실시시기는 중학교(41.7%), 초등학교 고학년(4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진로인식의 시기인 초등학교부터의 진로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개인의 진로개발이 생애의 한 시점에 제한된 선택과 결정에 대한 지원보다는 생애에 걸쳐 진로관리기술을 배양하는 것을 강조하는(윤형한, 이지연, 김나리, 2005) 진로발달의 관점을 살펴본다면 진로에 대한 현실적 기대를 갖기 시작하는 초등학생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진로탐색이나 진로결정을 앞둔 청소년과 달리 진로인식단계에 해당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진로상담 개입방안이 보다 많이 제안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초등학생들의 진로발달 특성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인식과 진로포부, 직업포부유형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인식과 진로포부, 직업포부유형은 성별,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진로인식, 진로포부, 직업포부유형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셋째, 진로인식은 진로포부와 직업포부유형에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충청남도 소재 초등학교 30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남학생 137명(45.5%), 여학생 164(54.5%)명으로 4학년 93(30.9%), 5학년 96명(31.9%), 6학년 112(37.2%)이며 임의표집하였다.

측정도구

진로인식 척도

초등학생의 진로인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2008)에서 개발한 진로인식검사를 사용하였다.

진로인식 검사는 진로인식 척도,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부주의성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 부주의성 척도는 개별 피검자의 수검태도를 확인하기 위한 척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인식 척도만 사용하였다.

진로인식 척도는 총 32문항으로 자기이해(자기탐색, 의사결정성향, 대인관계성향), 직업세계인식(직업편견, 직업가치관), 진로태도(자기주도성, 진로준비성)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2로 나타났다.

진로포부 척도

O'Brien(1992)은 자신의 진로 안에서 성취를 향한 포부를 측정하기 위해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The Career Aspiration Scale(CAS)을 개발하였고, 이를 본 연구에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진로포부 척도는 자기 진로분야에서 계획과 목표를 측정한다. 진로포부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인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포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4이었다.

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인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포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4이었다.

직업포부 유형 검사

초등학생의 직업포부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배혜련(2003)이 Holland의 RIASEC 유형 직업코드를 바탕으로 개발한 직업포부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실재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관습형의 6가지 유형 직업에 대해 갖기를 열망하는 희망정도를 측정한다. 각 유형별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 문항은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직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시한다. 각 문항은 Likert식 7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으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초등학생 30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진로인식, 진로포부 및 직업흥미유형의 성별, 학년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연구대상자의 진로인식, 진로포부 및 직업포부유형 변인의 기술통계치는 <표 1>과 같다.

표 1. 각 변인에 대한 기초통계량

	N	M	SD
진로인식 전체	301	85.29	15.74
자기이해	301	31.54	7.48
자기탐색	301	3.95	1.36
의사결정	301	12.27	4.28
대인관계	301	15.32	4.12
직업세계인식	301	21.66	3.46
직업편견	301	13.65	2.56
직업가치관	301	8.01	2.70
진로태도	301	32.086	7.64
자기주도성	301	11.88	2.84
진로 준비성	301	20.20	5.67
진로포부	301	31.43	4.06
직업포부유형	301	178.86	34.38
실재형	301	27.40	5.98
탐구형	301	31.67	8.17
예술형	301	31.72	7.60
사회형	301	31.52	7.52
기업형	301	28.40	6.61
관습형	301	28.15	6.62

진로인식, 진로포부, 직업포부유형의 성별 차이

성별에 따른 진로인식, 진로포부, 직업포부 유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진로인식 전체는 성별에 따라 여자(M=88.15)가 남자(M=81.87)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1$). 하위척도에서도 의사결정($p < .01$), 진로태도($p < .001$), 자기주도성($p < .001$), 진로준비성($p < .001$)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진로포부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

았고, 직업포부유형에서는 하위척도 중 실재형에서는 남자(M=29.05)가 여자(M=26.0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예술형은 남자(M=28.42)보다 여자(M=34.48)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사회형에서도 남자(M=28.52)보다 여자(M=34.04)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진로인식, 진로포부, 직업포부유형의 변량분석

학년에 따라 진로인식, 진로포부, 직업포부 유형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진로인식에서는 하위척도 중 자기탐색($p < .001$)과 직업편견($p < .05$)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기탐색은 4학년(M=3.45), 5학년(M=4.15), 6학년(M=4.21)로 학년이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직업편견은 4학년(M=14.20), 5학년(M=13.49), 6학년(M=13.32)로 학년이 낮을수록 직업편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포부는 4학년(M=32.78), 5학년(M=30.37), 6학년(M=31.21)로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학년의 진로포부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직업포부유형에서는 학년별 차이는 직업포부유형 전체에서 4학년(M=36.21), 5학년(M=31.56), 6학년(M=33.99)로 4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척도 중에서는 탐구형에서만 유의수준 $p < .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4학년(M=32.55), 5학년(M=29.65), 6학년(M=32.68)로 6학년과 4학년이 5학년과 비교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진로인식, 진로포부 및 직업포부유형 간의 관계

표 2. 성별에 따른 진로인식, 진로포부, 직업포부유형의 차이분석 결과

	성별	N	M	SD	t
진로인식 전체	남	137	81.87	16.29	-3.479**
	여	164	88.15	14.71	
자기이해	남	137	30.26	7.72	-2.737
	여	164	32.62	7.12	
자기탐색	남	137	4.11	1.41	1.814
	여	164	3.82	1.30	
의사결정	남	137	11.50	4.39	-2.872**
	여	164	12.91	4.13	
대인관계	남	137	14.64	4.21	-2.600
	여	164	15.88	3.98	
직업세계인식	남	137	21.61	3.57	-2.19
	여	164	21.70	3.38	
직업편견	남	137	13.84	2.77	1.169
	여	164	13.49	2.37	
직업가치관	남	137	7.77	2.65	-1.413
	여	164	8.21	2.74	
진로태도	남	137	30.00	7.98	-4.410***
	여	164	33.83	6.89	
자기주도성	남	137	11.10	2.74	-4.504***
	여	164	12.54	2.75	
진로 준비성	남	137	18.90	5.97	-3.681***
	여	164	21.29	5.17	
진로포부	남	137	31.67	4.30	.927
	여	164	32.23	3.84	
직업포부유형	남	137	175.93	35.46	-1.348
	여	164	181.31	33.36	
실재형	남	137	29.05	6.47	4.424***
	여	164	26.02	5.15	
탐구형	남	137	32.55	8.16	1.719
	여	164	30.93	8.13	
예술형	남	137	28.42	6.68	-7.537***
	여	164	34.48	7.24	
사회형	남	137	28.52	7.29	-6.754***
	여	164	34.04	6.77	
기업형	남	137	28.64	7.03	.585
	여	164	28.19	6.26	
관습형	남	137	28.73	6.29	1.409
	여	164	27.65	6.44	

** $p < .01$, *** $p < .001$

표 3. 학년에 따른 진로인식, 진로포부, 직업포부유형의 변량분석 결과

	학년	N	M	SD	F	Scheffe
진로인식 전체	4학년	93	84.68	15.73	1.562	
	5학년	96	83.55	15.25		
	6학년	112	87.29	16.07		
자기이해	4학년	93	30.70	7.02	2.799	
	5학년	96	30.82	7.14		
	6학년	112	32.86	8.00		
자기탐색	4학년	93	3.45	1.23	9.779***	4≠5, 5=6
	5학년	96	4.15	1.38		
	6학년	112	4.21	1.34		
의사결정	4학년	93	12.02	4.15	2.019	
	5학년	96	11.78	4.17		
	6학년	112	12.90	4.42		
대인관계	4학년	93	15.23	4.03	1.142	
	5학년	96	14.90	4.24		
	6학년	112	15.75	4.09		
직업세계인식	4학년	93	21.94	3.74	.469	
	5학년	96	21.46	3.57		
	6학년	112	21.61	3.12		
직업편견	4학년	93	14.20	2.52	3.334*	4=5=6
	5학년	96	13.49	2.55		
	6학년	112	13.32	2.56		
직업가치관	4학년	93	7.73	2.88	1.090	
	5학년	96	7.97	2.69		
	6학년	112	8.29	2.55		
진로태도	4학년	93	32.04	7.93	1.069	
	5학년	96	31.27	7.24		
	6학년	112	32.82	7.70		
자기주도성	4학년	93	12.22	3.06	.916	
	5학년	96	11.73	2.73		
	6학년	112	11.74	2.74		
진로 준비성	4학년	93	19.83	5.69	2.216	
	5학년	96	19.54	5.49		
	6학년	112	21.08	5.73		
진로포부	4학년	93	32.78	4.24	9.048***	4=5, 4≠6
	5학년	96	30.37	3.92		
	6학년	112	31.21	3.71		

* $p < .05$, *** $p < .001$

표 3. 학년에 따른 진로인식, 진로포부, 직업포부유형의 변량분석 결과 (계속)

	학년	N	M	SD	F	Scheffe
직업포부유형	4학년	93	179.62	36.21	3.721*	4=5, 5=6 4≠6
	5학년	96	171.59	31.56		
	6학년	112	184.46	33.99		
실제형	4학년	93	27.11	6.34	1.745	
	5학년	96	26.74	6.09		
	6학년	112	28.21	5.52		
탐구형	4학년	93	32.55	9.79	4.433*	4≠5, 5=6
	5학년	96	29.65	6.81		
	6학년	112	32.68	7.49		
예술형	4학년	93	31.83	7.85	2.556	
	5학년	96	30.39	7.76		
	6학년	112	32.77	7.13		
사회형	4학년	93	31.83	7.50	2.965	
	5학년	96	30.05	7.40		
	6학년	112	32.54	7.52		
기업형	4학년	93	28.30	6.97	3.030	
	5학년	96	27.23	5.98		
	6학년	112	29.47	6.71		
관습형	4학년	93	28.00	7.03	.380	
	5학년	96	27.53	6.57		
	6학년	112	28.79	6.32		

* $p < .05$

진로인식, 진로포부, 직업포부유형의 관계분석

주요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인식 전체는 진로포부와 .14($p < .01$)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직업포부유형 전체와는 .80($p < .001$)의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직업포부유형

전체는 진로포부와 .29($p < .001$)의 정적상관을 보였다.

상관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포부는 진로인식 하위척도 중 자기이해에서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그 하위척도인 자기탐색에서 부적상관을 보였고 의사결정과 대인관계에서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직업세계인식과는 정적상관을 보였고 그 하위척

표 4. 변인간 상관관계

	진로포부	직업포부 유형	실재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관습형
진로인식 전체	.14**	.80***	.59***	.66***	.64***	.73***	.64***	.61***
자기이해	.06	.74***	.56***	.58***	.57***	.66***	.60***	.60***
자기탐색	-.36***	-.09	-.01	-.13*	-.10*	-.10*	-.03	-.03
의사결정	.11*	.70***	.53***	.53***	.54***	.61***	.61***	.60***
대인관계	.12*	.63***	.46***	.55***	.50***	.60***	.46***	.48***
직업세계인식	.19***	.40***	.27***	.41***	.28***	.37***	.32***	.22***
직업편견	.08	-.07	-.05	-.02	-.08	-.07	-.09	-.07
직업가치관	.17**	.59***	.39***	.55***	.44***	.54***	.49***	.41***
진로태도	.14**	.75***	.56***	.61***	.64***	.69***	.59***	.75***
자기주도성	.30***	.61***	.41***	.55***	.59***	.54***	.46***	.40***
진로 준비성	.04	.70***	.55***	.54***	.56***	.66***	.56***	.53***
진로포부		.29***	.16**	.30***	.27***	.24***	.22***	.19***
직업포부유형			.74***	.83***	.76***	.82***	.86***	.82***
실재형				.62***	.37***	.41***	.62***	.69***
탐구형					.52***	.60***	.66***	.60***
예술형						.71***	.56***	.47***
사회형							.63***	.56***
기업형								.74***
관습형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진로포부에 대한 진로인식의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	R ²	R ² ch	F	Beta	t
진로포부	자기탐색	.360	.129	.129	44.479***	-.360	-6.669***
	자기주도성	.437	.191	.061	35.114***	.250	4.748***
	진로준비성	.453	.205	.014	25.545***	-.146	-2.319*

* $p < .05$, *** $p < .001$

* R² 값은 stepwise 방법($p < .05$)에 의한 누적임.

** $p < .05$ 수준에서 영향력이 없는 변인은 생략하였음.

표 6. 직업포부유형에 대한 진로인식의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	R ²	R ² ch	F	Beta	t
직업 포부유형 전체	진로준비성	.704	.496	.496	293.934***	.704	17.145***
	의사결정	.756	.572	.076	198.810***	.403	7.265***
	자기주도성	.793	.629	.057	167.631***	.290	6.758***
	직업가치관	.804	.647	.018	135.709***	.171	3.932***
	직업편견	.812	.659	.012	113.985***	.114	3.195**
	대인관계	.817	.667	.008	98.105***	.129	2.653**
실재형	진로준비성	.550	.302	.302	129.651***	.550	11.386***
	의사결정	.582	.339	.037	76.440***	.280	4.063***
	직업편견	.591	.350	.010	53.196***	.107	2.185*
탐구형	자기주도성	.552	.305	.305	131.149***	.552	11.452***
	직업가치관	.638	.407	.102	102.298***	.364	7.166***
	대인관계	.672	.451	.044	81.355***	.261	4.879***
	의사결정	.685	.470	.018	65.499***	.176	3.208**
	직업편견	.691	.478	.009	54.063***	.098	2.210*
예술형	자기주도성	.591	.349	.349	160.525***	.591	12.670***
	의사결정	.660	.436	.086	115.069***	.332	6.756***
	대인관계	.671	.450	.014	80.919***	.153	2.749**
사회형	진로준비성	.664	.440	.440	235.296***	.664	15.339***
	대인관계	.696	.484	.043	139.627***	.283	5.004***
	직업가치관	.715	.511	.027	103.310***	.203	4.040***
	자기주도성	.726	.526	.016	82.259***	.159	3.140**
	의사결정	.735	.540	.014	69.379***	.177	2.997**
기업형	의사결정	.613	.376	.376	179.855***	.613	13.411***
	직업가치관	.646	.418	.042	106.938***	.238	4.650***
	자기주도성	.660	.436	.018	76.440***	.159	3.067**
관습형	의사결정	.602	.362	.362	169.986***	.602	13.038***
	대인관계	.623	.388	.026	94.603***	.197	3.552***

* $p < .05$, ** $p < .01$, *** $p < .001$

* R^2 값은 stepwise 방법($p < .05$)에 의한 누적임.

** $p < .05$ 수준에서 영향력이 없는 변인은 생략하였음.

도인 직업가치관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진로태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그 하위 척도에서는 자기주도성에서 정적상관을 보였다.

진로포부와 직업포부유형 하위척도와의 관계에서는 실재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관습형 모두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직업포부유형 전체는 진로인식 하위척도 중 자기이해에서 정적상관을 보였고, 자기이해의 하위척도 중에서는 자기탐색을 제외한 의사결정과 대인관계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직업세계인식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그 하위척도에서는 직업가치관에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진로태도와 그 하위척도인 자기주도성 및 진로준비성과는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직업포부유형의 하위척도인 실재형은 진로인식의 하위척도인 자기탐색과 직업편견을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에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탐구형과 예술형, 사회형은 진로인식의 하위척도인 자기탐색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직업편견을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기업형과 관습형은 진로인식의 하위척도 중 자기탐색과 직업편견을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진로인식, 진로포부, 직업포부유형의 회귀분석

진로인식, 진로포부, 직업포부유형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하여 stepwise 방식에 따른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진로인식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포부에 진로인식 하위척도 중 자기탐색, 자기주도성, 진로준비성이 유의

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포부유형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진로인식 하위척도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직업포부유형 전체를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는 진로인식의 하위척도 중 진로준비성, 의사결정, 자기주도성, 직업가치관, 직업편견, 대인관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포부유형의 하위유형 중 실재형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로준비성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추가적으로 의사결정, 직업편견이 유의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구형에서는 자기주도성이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직업가치관, 대인관계, 의사결정, 직업편견이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형은 자기주도성이 가장 높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결정과 대인관계도 추가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사회형에서는 진로준비성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대인관계, 직업가치관, 자기주도성, 의사결정이 추가적인 설명력을 보였다. 기업형은 의사결정이 가장 높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가치관과 자기주도성이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습형은 의사결정이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도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인식, 진로포부, 직업포부유형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진로인식 수준이 현실적

인 진로포부와 구체적인 진로선택을 하게 하는 동기인 직업포부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결과를 보면 첫째, 진로인식 전체와 자기이해의 하위척도인 의사결정, 진로태도와 그 하위척도인 자기주도성과 진로준비성에서 남녀 차이가 나타났다. 의사결정과 진로태도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합리적 의사결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의 필요성, 일의 세계와 현재 자신의 상황을 관련시켜 인식하는 진로인식 수준이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진로인식 수준에 따른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남녀 수준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진로포부는 남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직업포부유형에서는 실재형과 예술형, 사회형에서 남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실재형은 남자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예술형과 사회형은 여자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재형은 남자가 높고, 예술형과 사회형은 여자가 높게 나온 선행연구(이은애, 2006;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 고용정보원, 2001)와 일치한다. 기계·운동적인 활동과 관련된 직업분야에 남학생이 더 흥미를 나타내고, 여학생은 더 관계적이고 감수성이 강하며 개방적인 특성을 갖는 분야에 흥미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녀 간의 성향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년별 차이를 보면 진로인식에서는 자기탐색과 직업편견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자기탐색은 고학년이 될수록 높게 나타났다고, 직업편견은 학년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진로포부도 또한 학년별 차이를 보였는데 학년이 낮을 때 진로포부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포부유형 전체에서는 6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탐구형에서 학년별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신의 적성, 성격, 태도, 능력에 대한 자기탐색 영역에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인식수준이 높았고,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직업의 귀천에 대한 편견정도는 학년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 학년이 높을수록 진로인식이 구체화되면서 직업편견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각 변인간 전체와 하위척도별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진로포부는 진로인식 전체 정적상관을 보였고, 하위척도에서는 자기탐색과 부적상관을 보였으나 대인관계, 직업세계인식, 직업가치관, 진로태도, 자기주도성에서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직업포부유형과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직업포부유형 전체는 진로인식에서 자기탐색과 직업편견을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에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직업포부유형 중 실재형, 기업형과 관습형은 진로인식의 하위척도인 자기탐색과 직업편견을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에서 정적상관을 보였다. 탐구형과 예술형은 진로인식의 하위척도 중 직업편견을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에서 정적상관을 보였다. 진로인식의 하위척도 중 직업편견은 각 변인들과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진로인식이 높을수록 진로포부가 높아지며 다양한 직업에 대한 포부가 증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진로포부에 대한 진로인식의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진로인식의 하위요인 중 자기탐색, 자기주도성, 진로준비성이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포부는 진로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하며 진로선택을 명료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초등학생이 자신의 특징에 대해 탐색하고 인식하는 것 그리고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진로인식이 진로포부를 갖는데 필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직업포부유형 전체와 하위유형에 대한 진로 인식의 하위요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는 직업포부유형 전체에 대해서는 진로준비성, 의사결정, 자기주도성, 직업가치관, 직업편견, 대인관계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실재형에 대해서는 진로준비성과 의사결정, 직업편견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탐구형은 자기주도성, 직업가치관, 대인관계, 의사결정이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형은 자기주도성, 의사결정, 대인관계, 사회형은 진로준비성, 대인관계, 직업가치관, 자기주도성, 의사결정이 각각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형은 의사결정, 직업가치관, 자기주도성이 관습형은 의사결정과 대인관계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진로분야에 대한 계획과 목표 측정과 관련된 진로포부에서는 자기탐색이 중요한 변인으로 영향을 주었지만 직업포부유형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탐색보다도 진로에 관심을 갖고 탐색하고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구체성과 희망하는 이유 등의 진로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체적인 직업흥미와 관련된 하위유형에서는 자기주도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로발달에 있어서 초등학교 시기는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시기이며, 진로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인 진로포부 및 직업흥미가 발달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진로 교육 및 진로상담이 진로인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점차 의사결정 과정이나 주도

적인 진로탐색 및 구체적인 진로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직업과 일이 개인의 생활에 절대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진로선택이야말로 한 개인의 진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이재창, 1992). 따라서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진로교육과 진로상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자기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현실성을 갖게 되고 구체화된다(황매향, 김지현, 유정이, 2004). 이는 진로발달이 삶의 특정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일회적인 발달 과정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일련의 발달과정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의 진로발달의 중요요인인 진로인식, 진로포부 및 직업포부유형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초등학생의 진로포부 및 직업포부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인식 변인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초등학생의 진로발달과 진로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의 결과가 아동의 진로지도와 상담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아동의 진로인식과 진로포부는 도·농간 차이, 가정 경제력의 차이와 같은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이 고려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다. 또한 진로인식의 영향을 받은 진로포부와 직업포부 유형에 대한 결정이 향후 있을 고등학교 시기의 실제적인 결정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종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초등학교의 진로상담 및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일 부지역의 초등학생으로만 표집되어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 공윤정, 박한샘 (2009). 아동의 진로발달과 영향 요인. *진로교육연구*, 22(2), 79-100.
- 김경주 (2009). 청소년 진로포부 영향요인 구조 분석. 순천향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명진 (1997). 중학생의 직업흥미와 직업가치관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5).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충기 (1995). 미래를 위한 진로교육. 서울: 양서원.
-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2001). 청소년직업 흥미검사 실시요람. 서울: 중앙고용정보관리소.
- 민장식 (1998). 중학생진로교육의 실태와 의식조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철수 (1998). 초등학교 학생의 진로인식에 관한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배혜련 (2003). 중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과 직업적 포부.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성혜경 (2003). 중학생의 직업흥미유형 및 진로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송은자 (2004). 초등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직업적 포부의 발달적 변화.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안성대 (2002). 중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직업흥미와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난미, 이은경 (2008). 초등학생의 진로포부에 대한 부모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55-472.
- 오선미 (1999). 중학생의 직업흥미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형한, 이지연, 김나리 (2005). 청소년의 진로개발 영향요인 및 성과분석. 제 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은애 (2006). 중학생의 Holland 직업흥미와 학업성취도 및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재창 (1992).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활용. *대학생활연구*, 10,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정근 (1989). 진로지도의 실제. 서울: 성원사.
- 이정임 (2008).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직업포부와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범 (2005). 초등학생의 진로발달 검사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현림, 이난희, 이영옥 (2006).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의식 성숙 및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15(1), 221-233.
- 임경희 (2004). 초등학생의 진로자아효능감과 가정, 학교 및 개인변인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17(2), 76-91.
- 임균택 (2000). 초중학생의 진로인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선미 (2009). 농촌지역 초등학생의 직업포부형성과 관련 변인 - 경기도 평택 소재 분교 초등학생 중심으로 -. *청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행욱 (2005). 여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성역할정체감 및 진로포부의 관계. 전주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재순 (1992). 초등학교의 진로인식에 관한 연
구. 한국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동선 (1997). 고등학교의 직업적 성격과 학업
성취도, 학교에의 적응, 직업가치관과의 관
계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고용정보원 (2008). 초등학교 진로인식검사
개발 연구(2차년도) - 시범운영 결과를 중심
으로 -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교육개발원 (1985). 진로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중앙고용정보원 (2002).
청소년용 직업흥미검사 사용자 가이드. 서
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중앙고용정보원.
- 허영운 (1998). 성격의 5요인모형과 흥미의
Holland 모형론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
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황매향, 김지현, 유정이 (2004). 대학생의 직업인
식 발달연구. 아시아교육연구, 5(1), 127-143.
- Brolin, D. E. (1995). *Career education: A functional
life skills approach*(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79.
- Holland, J. L. (1985). *Making vocational choic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O'Brien, K. M. (1992). *Career aspiration scale*
(Available from K. M. O'Brien, Psychology
Department,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MD 20742).
- O'Brien, K. M., & Fassinger, R. E. (1993). A
casual model of the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choice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456-459.
- O'Brien, K. M., Gray, M. P., Touradji, P. P., &
Eigenbrode, S. P. (1996, August). The
operationalization of women's career choices:
The Career Aspiration Scale. In V. S. Solberg
and K. M. O'Brien(Chairs), *Promoting women's
career development into the next millennium and
beyond*. Symposium conduc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Sharf, R. S. (2010). 진로발달이론을 적용한 진로
상담[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4th. Ed.]. (이재창, 조봉환, 안희
정, 황미구, 임경희, 박미진, 김진희, 최정
인, 김수리 역). 서울: 아카데미프레스(원
전은 2006년 출판).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Grown, L. Brookd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2nd ed., pp.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
- Trice, A. D., & King, R. (1991). Stability of
Kindergarten children's career aspirations to
parent's occupation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3(3), 355-357.

◆ 원 고 접 수 일: 2012년 3월 31일

◆ 수정원고접수일: 2012년 5월 05일

◆ 계 재 승 인 일: 2012년 5월 11일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Awareness, Occupational Aspiration, and Vocational Aspiration Typ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hwa Choi

Hanshin University

Kyung-Hee Lim

Sunchon University

Mee-Jin Park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study were to examine elementary school student's career awareness, occupational aspiration, and vocational aspiration type. For these purpose, we analysed the data from 301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career awareness, and vocational aspiration type between male and female, and among school years. And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occupational aspiration among school years. Second, career awareness was correlated with occupational aspiration and vocational aspiration type. Third, occupational aspiration was affected by career awareness. And aspiration interest type was affected by career awareness.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and for career counseling for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made.

Key words : career awareness, occupational aspiration, vocational aspiration type, elementary career counseling